

第5次 太平洋沿岸國原子力會議 開催

國內外 原子力專門家 1,200餘名 參席

原子力展示會도 큰 成果

韓國原子力産業會議와 韓國原子力學會가 공동으로 主催한 第5次 太平洋沿岸國原子力會議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연안국과 유럽 여러나라, IAEA, OECD /NEA 등 世界 26個國과 2個 國際機構에서 1,200 余名の 原子力界 人士가 參席한 가운데 5月19日부터 23日까지 세라튼워커히호텔에서 盛況리에 열렸다.

相互協力を 強調

이번 제5차 회의의 大會長인 朴正基 當會議 會長은 5월 20일 상오 개회식에서 開會辭를 통해 「세계의 중심이 大西洋에서 太平洋으로 옮겨 오고 있으며,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人的·物的資源의 무한한 可能性과 各國의 協력이 조화를 이룰때 世界史의 主役으로서 반영하는 새 歷史를 創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希望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原子力産業分野」라고 전제하

고 「이미 이 原子力産業은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活氣를 띠고 있으며, 原子力發電의 活性化는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개발도상국에서의 原子力發電은 選擇의 이라기보다는 必須의인 에너지源으로 등장되고 있으므로 原子力産業의 開發과 利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人種과 文化와 國境을 초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協力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名譽大會長인 金聖鎭 科學技術處 長官은 致辭에서 「에너

지의 安定供給은 世界各國의 經濟發展과 人類福祉의 向上에 필수적인 要素로서 石油에너지資源의 限界로 말미암아 오늘날 人類가 당면한 가장 큰 課題의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原子力에너지의 利用과 擴大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 「太平洋沿岸國原子力會議가 原子力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國家間 協力, 나아가 地域間 協力の 필요성을 強調해온 그동안의 노력과 成果를 기반으로 금번 서울會議에서는 會員國이 얻은 귀중한 經驗을 交換함과 더불어 原子力産業이 직면한 諸般問題가 충분히 論議되어 太平洋沿岸地域에서 原子力産業의 새로운 座標가 모색되기를 希望한다」고 하였다.

汎世界大會로 飛躍

太平洋沿岸國 原子力會議라는 지역한계를 초월하여 英國, 프랑스, 西獨, 이탈리아, 스웨덴, 스



위스 등 非太平洋沿岸國인 유럽 여러나라와 IAEA 및 OECD/NEA 등 世界 26國, 2個 國際機構에서 대표가 참석함으로써 汎世界的인 大會로 비약의 계기가 된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原子力産業의 活性化를 爲한 相互協力」을 주제로 하여 「原子力發電事業의 착수」 「後行核燃料週期」 「지역협력」 「中·小型 原子爐」 「동위원소 및 방사선응용기술」 「原電의 技術서비스 및 補修」 등의 분야에 관해서 15個國의 原子力 專門家가 60여편의 論文을 발표, 各國의 經驗과 現況 및 開發政策, 安全對策, 原子力産業의 진흥대책 등 최근 원자력기술분야의 관심사항이 다루어졌고, 지역협력에 관해 태평양지역훈련센터가 제안되어 주목을 받았으며 개발도상국의 고급인력양성에 대한 先進國의 協력과 原子力 보유 국가의 國際間 活用問題가 논의되는 등 原子力産業의 지역간 상호협력 강화를 다짐하였다.

特別講演

또한 이번 會議에서는 각종 研究論文의 발표외에 세계 저명 원자력인사들의 특별강연도 있었다.

英國電力公社의 「윌터·마셜」경이 「大衆은 原子力發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安全性을 어떻게 解析하는가」, OECD/NEA의 「토시아수·사사끼」박사가 「代替에너지源으로서 原子力發電의 經濟性」, 日本原子力委員會의 「다카시·무카이보」위원장이 「원자력에너지의 역할과 전망」, IAEA의 「카를로스·벨레스·오콘」 사무차장이

「地域協力에 있어서 IAEA의 역할」에 관해서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文化와 經濟開發을 소개하기 위한 특별강연으로 5월22일 저녁 리틀엔젤스 문화회관에서 우리의 민속무용 및 음악과 함께 한글학자 한갑수씨가 「韓國의 歷史와 文化」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였고, 5월23일에는 한국무역협회 南惠祐회장이 「韓國의 경제개발, 회고와 전망」에 관해 특별강연을 하였다.

尖端機器·技術 弘報競爭

이번 會議期間中에 함께 열린 原子力展示會에는 7個國의 51個 原子力産業體에서 350여점의 展示品을 出品, 첨단기기와 기술을 선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韓國電力公社, 韓國重工業, 韓電技術, 現代建設, 現代重工業, 대우ITT, 대한전선, 금성전선, 효성중공업, 신한과학 등 10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美國에서는 콤버선엔지니어링, 제너럴일렉트릭, 웨스팅하우스 등 原子力機器製造會社가 展示會에 出品하였으며 프랑스의 프라마툼, 코제마, 알스툼, 캐나다의 카나

다原子力公社, 日本의 히다찌, 미쓰비시, 고베제철 등이 自社의 現況과 주요 제품 및 첨단기술을 모형과 실물, 안내책자를 통해서 소개하는 등 치열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産業視察 및 同伴者行事

第5次 PBNC 서울會議가 5월 23일 閉會式에서 '87年度 第6次 會議를 1987년 9월 6일부터 11일까지 北京에서 開催한다는 中공원자력학회 呂慶義사무총장의 招請演說로 폐막된후, 會議 參加者들은 2泊 3日의 일정으로 月城原子力發電所와 古里原子力本部를 방문하였으며 慶州를 觀光하였다.

한편 中공대표단은 별도로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과 古里原子力本部 및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주)대우ITT 옥포공장, 한국중공업(주) 창원공장 등을 방문하고 「대만이 중소기업 중심인데 비하여 韓國은 중소기업과 중공업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다.

그밖에 本會議期間에는 동반자들을 위한 행사로 한국민속촌, 비원, 국립박물관 관람과 예지원의



전통혼례 및 茶道示範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와 풍습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고,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이 열릴 올림픽스타디움을 방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會議開催効果

第5次 서울會議은 原子力 기술정보의 교환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함은 물론 우리나라 原子力産業界의 역량을 국내외에 과시, 활동무대를 國內에서 부터 본격적인 國際化時代로 넓혀 先進國家에 우리의 技術을 역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原子力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태평양지역 결속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第4次 會議에 비하여 내용과 규모가 월등하여, 太平洋地域會議에서 汎世界的인 原子力會議이 되었다.

과학기술외교면에서는 중공 및 開發途上國에 대해 우리나라의 발전상과 능력을 충분히 소개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중공이 1987년의 第6次 會議에 韓國의 참가를

약속하는 등 대중공관계의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PBNC에 對한 海外의 反應

◇…Nucleonics Week誌는 5月23日字(Vol. 26, No. 21) 「서울의 第5次 PBNC 大盛況」이라는 題下에 다음과 같은 記事를 게재하였다.

「極東地域이 21世紀에 世界 原子力産業의 中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분은 5月19日부터 韓國 서울에서 開催된 第5次 太平洋沿岸國 原子力會議에 參席했어야 했다.

太平洋沿岸國 原子力會議로서는 최고의 기록인 900명이상이 原子力發電 및 관련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서울에 모였는 바, 이번의 參加者는 2년전 캐나다 밴쿠버會議때의 3배가 넘는 것이다.

會議를 主催한 韓國은 1,900MW의 原子力發電所가 稼動中이고 5,700MW가 建設中에 있으며, 原子力技術과 建設에 있어서 이웃 나라 日本을 뒤쫓기 爲하여 全力을 다하고 있다. 韓國 原子力界 人士 約10,000名이 參加하기를 원했으나, 廣大한 靑라톤워커힐호

텔의 회의장이 滿員이 되어 되돌아 갔으니 韓國原子力界의 저력을 測定할 수 있다.

韓國은 自立直前に 있는 韓國의 原電計劃을 과시하기 爲하여 이번 會議를 誘致하였다. 電力需要增大의 不確實性 때문에 韓國政府는 最近 意慾的인 原電開發計劃을 縮小하여 4기가 아닌 2기의 入札案内書가 年內에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韓電과 함께 原子力産業에 參與하는 外國의 A/E社와 主機器製作者들은 56個月만에 原電을 建設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月城原電의 1985年度 利用率이 80%以上에 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美國에서는 B&W社를 제외한 대부분의 大A/E業體와 NSSS供給業體에서 대규모 대표단이 참가하였고, 캐나다와 프랑스에서도 前例없이 多數의 參加團이 參席한 것은 韓國의 原電事業에 이들이 關心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며, 이들 A/E 및 製造業體들은 韓國이 처음으로 主契約者가 되어 建設하려고 노력하는 11, 12號機에 대해 韓國의 産業界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경쟁하고 있다. 또한 韓國의 核燃料成型加工工場 建設計劃에도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데, 금년 말경에 5個 경쟁회사중에서 결정될 것이다.

臺灣電力의 朱社長은 會議席上에서 다섯번째 原電인 951MW의 Maanshan 2號機가 5月19日에 商業稼動에 들어감으로서 原子力發電施設容量이 5,140MW에 達하였다고 發表하였다. 亞細亞 原子力



第 6 次 PBNC 招請演說文 (要旨)

第 5 次 PBNC가 이룩한 업적과 성공을 축하드리며, 이번 제 5차 회의는 原子力의 平和利用에 대한 지속적인 發展을 增進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第 6 次 PBNC가 1987년 9월 6일부터 11일까지 北京에서 開催됨을 공식으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중공은 國家經濟가 성장함에 따라 에너지의 需要와 供給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原子力發電의 開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900MWe PWR 2基의 廣東原電과 秦山의 300MWe PWR이 建設中에 있으며, 금세기말까지 總發電容量 10,000MWe의 原電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최근 몇몇 國家에서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原子力産業이 부진하나, 이 현상은 일시적이라고 믿습니다. 原子力發電은 經濟的이고 安全한 에너지源이며, 技術的인 면에서 더욱 진보될 것

입니다. 原子力産業은 밝은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어려움때문에 용기를 잃어서도 안되며, 소수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第 6 次 PBNC의 主題를 「1990년대에 있어서 原子力技術의 展望」으로 제의합니다.

第 6 次 會議에서는 原電의 建設과 運轉, 安全性評價, 核燃料의 供給 및 核燃料週期,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기술,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경험과 改善策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의 原子力 平和利用에 관한 技術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第 6 次 北京會議가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많은 參加를 바랍니다.

1987년 가을 北京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하며, 第 5 次 PBNC 主催側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韓國의 原電計劃과 原子力産業에 對하여 오래前부터 깊은 觀心과 敬意를 表하여 왔었습니다.

美國에서 비슷한 原子力産業會議에 數十次 參席하였으나, 대체적으로 原子力産業界의 重鎮들이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큰 成果였으나, 今般 第 5 次 太平洋沿岸國原子力會議는 論文의 내용이 알차고, 質疑應答도 깊이가 있었으며, 世界各國에서 韓國의 原子力産業에 깊은 觀心을 갖고 있다는 點을 特記할 수 있습니다.

主催側인 韓國原子力産業會議와 韓國原子力學會, 組織委員, 技術分科委員들의 努力과 美國原子力學會의 後援에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특히 地域間의 協力 “Regional Cooperation”에 對하여는 本人도 全面的으로 贊成하며, 이는 地域協력을 통하여

- (1) 不必要한 努力과 실패의 重複을 피할 수 있고,
- (2) 經驗交換 “Lesson Learned”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地域間協力分科인 “Code와 Standards”의 Working Group에 本人이 參加하는 것과 ANS 韓國支部 加入을 希望합니다.」

産業의 전위적 위치에 있는 日本에서는 다카시·무카이보 原子力委員會를 비롯한 VIP들이 多數 參席하였다. 또한 특기할만한 것은 대규모 科學會議에서는 처음으로 중공대표 7명이 대담관계에 있는 대만대표와 함께 이번 會議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인데, 중공 원자력학회의 루·광이씨를 비롯한 7명의 대표는 서울會議를 세밀히 기록하면서 2年後의 北京會議를 準備하였다.」

◇...美國의 N. W. Edwards 박사는 6월 7日 馬景錫씨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祝賀書信을 보내 왔다.

